

전주국제영화제 올해 레드카펫 못 본다

오늘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개막작 '신춘잡비만화' 등 세월호 추모분위기 속 진행 각종 행사 취소·환호성 자제



개막작 '신춘잡비만화'의 한 장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전주 국제영화제(IJFF)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추모 분위기를 반영해 차분하게 펼쳐진다. 전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영화제 취소를 검토했지만 이미 인터넷 예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예도 분위기 속에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주 영화의 거리 일원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신 조직위는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일부 행사들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했다.

5월 1일 개막식과 5월 7일 시상식에 예정됐던 레드 카펫 행사를 취소하고, 개막식·시상식 이후 지리지는 리셉션 행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폐막식은 물론 시상식에서도 환호성이나 박수 등도 삼가기로 했다.

올해 영화제는 류승완·한지승·김태용 감독이 참여한 3D영화 '신춘잡비만화'를 비롯해 세계 44개국에서 초청된 181편(장편 142편·단편 39편)의 영화가 총 6개 극장 13개관에서 상영된다.

영화제 개막작인 '신춘잡비만화'는 티켓예매가 시작되자마자 22초 만에 온라인 판매분이 동남 정도로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 영화는 류승완 감독이 연출한

'유령'과 한지승 감독의 '너를 봤어', 김태용 감독의 '피크닉' 등 세 감독이 각자의 이야기를 펼쳐낸 옴니버스 영화로, 3D로 제작됐다.

이 밖에도 인터넷 예매에서 '레디 액션 청춘'은 1분 19초, '마녀'는 1분 41초만에 각각 동났다. '60만번의 트라이', '무드 인 디고',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내 이름은...', '그가 없는 8월이' 등도 매진 행렬에 동참했다.

또한 조직위는 깊이 있는 관람을 도울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와 '시네마 클래스'를 마련한다. 올해의 '마스터 클래스'

는 이탈리아의 저명한 영화이론가이자 평론가인 아드리아노 아프라가 진행한 다. 아프라는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의 개척자로 알려진 로베르토 로셀리니에 대한 유익한 강연을 들려줄 예정이다.

'시네마 클래스'는 옴니버스 영화 '디지털 삼인삼색 2014' 가운데 '조류 인간'을 연출한 신연식 감독이 '연기연출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5월 1~7일은 기존 영화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8~10일은 '국제경쟁' 상영작들과 각종 '경쟁부문' 수상작, 화제작을 모아 집중 상영한다.

7일에는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 단편 경쟁'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 지리 지며, 마지막날인 10일 폐막작을 대신해 '국제경쟁' 대상 작품이 상영된다.

영화제에서 상영할 영화를 선별해 초청하는 프로그래머들은 ▲포항(한국경쟁 부문) ▲언노운 노운(Unknown Known)(예를 모리스 감독) ▲라스트 무비(라야 마틴·마크 페란스 공동 연출) ▲레옹 M의 보트(다르덴 형제 감독) ▲인 데어 스킨(제레미 파위 레짐발 감독) 등 5편을 추천작으로 꼽았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정읍시, '꼬마버스 타요' 2대 5월 한달간 운행

정읍시가 '제92회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대중교통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지역내 시내버스에 '꼬마버스 타요' 캐릭터 이미지를 접목, 5월 1일부터 한 달간 운행한다.

시는 대한고속이 운행하고 있는 2대의 중형 시내버스에 주인공 캐릭터인 '타요'와 친구인 '라니'로 이미지화해 운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9일 '꼬마버스 타요'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아이코닉스, 애드시티(주) 랩핑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운행노선은 시내순환 노선인 27번 노선으로 제일 아파트~법원~터미널~명동의류~현대 1차아파트~동초교~시청~터미널~제일 아파트 구간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co.kr

남원시 시설사업소, '춘향·이몽룡 포토 존' 조성

남원시 시설사업소(소장 심만섭)는 최근 광한루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춘향, 이도령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포토 존'을 조성했다.

춘향과 이도령의 토피어리는 전통적인 한복 의상에 실물의 크기로 만들어졌으며 화단 모양은 '사랑의 도시' 남원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이다.

또 토피어리 주변에는 페추니아와 메리골드, 베고니아 등 봄꽃 150여본과 관목류를 심었다.

시설사업소는 봄맞이 '포토 존'을 6월초까지 운영하고, 가을 관광철에도 '포토 존'을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순창군이 자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일부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11개 읍·면으로부터 신청받은 210가구의 노후 불량주택을 방문해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창문이나 벽

체, 부엌 등을 4월 한달간 실측조사해 사업물량을 확정했다.

군은 올해 6억3000만원의 사업비(가구당 300만원 이내)를 투입해 난방설비와 지붕, 벽체 등 낡은 주택 구조를 개·보수해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고구마 농가 맞춤형 컨설팅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9일 센터 회의실에서 고구마 재배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농촌진흥청 고구마 전문가 등 전문가 5명을 초빙해 열린 이날 컨설팅은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구마 재배농가들 건의로 마련됐다.

전문가 토론회와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강의식 교육이 아닌 품종·육묘기술과 병해충 방제기술, 가공 및 유통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위주로 실시됐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윤영명기자 cy0370@

새누리당 전북도당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시끌'

김영현 여성위원장 "투명성 상실" 공천관리위 재구성 촉구 '돈 안썼다면 탈락 당연하다' 심사위원 발언 문제 제기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비례대표 공천문제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일부 여성당원들이 광역·기초 비례대표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례대표 공천 관리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천 관리위원회가 승인을 요청한 안건을 부결시켰다. 안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심사를 거쳐 확정된 지역별 광역·기초 비례대표 순위였다.

김영현 도당 여성위원장 등 여성당원 10여명은 지난 29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당 공천 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당원들이 불신과 혼란에 빠졌다"면서 공천 관리위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여성 당원들은 새누리당 중앙당에 공천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여성당원들은 "공천 관리위원회는 공천심사 후 결과를 밀봉해 30일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하기로 정했지만 심사가 끝난 후 특정 공천 심사위원이 일부 당원에게 심사 내용을 유출해 당원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한 심사위원은 특정 당원에게 모 후보자에게 돈을 썼는지 물으며 '돈을 쓰지 않았으면 떨어지는 것

은 당연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 비례대표 공천에 참여한 윤세자 씨도 "당 기여도와 지역사회 봉사, 대통령 표창 등 비례대표로서 손색이 없어 추천됐는데 불과 몇 개월 밖에 활동하지 않은 B씨가 선정됐다"고 항변했다. 한편 새누리당 전북도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는 전북도의회 6명, 전주시의회 4명, 군산시 4명, 익산시 2명, 정읍·김제시와 임실군에 각각 1명씩 총 19명이 접수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고창군 '탑 브랜드' 대상 고창군 이강수 군수와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4 코리아 탑 브랜드 대상'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고창 북부자 공동브랜드 '선연'이 특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윤영명기자 cy0370@



가입문의 1855-0000

hello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 1588-3300)



헬로tv UHD방송이런?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oworld.com